

# 9월께 韓美정상회담...북핵 조율

### 양국정상 전화통화 “FTA 조기 비준 공동 노력하자”

### 노대통령 과테말라 도착 ‘평창 세일즈’ 외교 본격 시동

조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가을 미국 방문’을 초청함에 따라 가을께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는 노 대통령이 9월말~10월 초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유엔총회 참석을 전후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정상회담 시기는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가을쯤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진통을 겪었던 BDA(방코 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2·13 합의’ 초기이행조치가 차곡차곡 실천되는 최근 일련의 흐름속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획기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진전된 북핵 정세를 계기로 양 정상 사이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천호선 대변인이 전날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 “6자회담의 성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6자회담, 외교장관회담 논의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정부 당국자는 “올 가을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평화협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들어 임기내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고,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주평화포럼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미간,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정상이 만나는 4자 정상회담도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가 넘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틀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노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내 양국 의회에서 이 협정이 비준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과테말라 IOC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시애틀을 경유지로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밤(한국시간) 숙소인 시애틀 세라톤호텔에서 부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13분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올해 가을 미국방문을 초청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밝히며 양국 관계 당국 간에 구체적 협의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과테말라시애틀=연합뉴스

# 부시 ‘무역촉진권한’ 상실

### 민주당 갱신 거부...보호무역 색채 강해질 듯

### AFP통신 “FTA 미 의회 인준 진통 가능성”

의회를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광범위한 대외무역협상 권한, 이른바 ‘무역촉진권(TPA)’ 시한 만료를 앞두고 백악관측의 갱신요청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0시를 기해 이 권한을 상실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TPA 연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미국의 각종 무역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커졌고, 특히 한미간 현안으로 부상한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해 미국 산업 및 노동자 권의 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 한미 FTA 비준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한미 양국은 부시 대통령의 TPA가 만료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인 한미 FTA에 공식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미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

식 서명식 후 성명을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한미 파트너십을 제고할 것”이라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에 무역협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의회는 이를 수정없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TPA를 처음 부여했으며 2005년 이를 2년 연장한 바 있다.

TPA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라운드(DDA)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하다고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TPA 상실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 “北, 단거리미사일은 한국 공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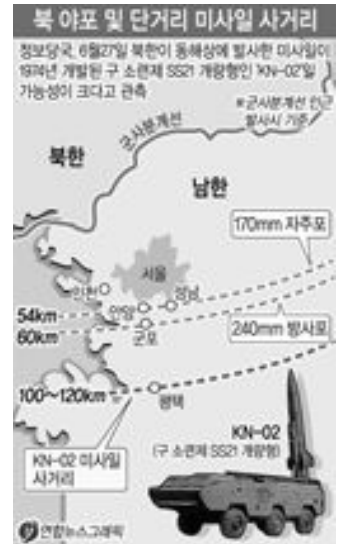
### 벨 사령관 강연 “한국이 방위비 50% 분담해야”

버벨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절반씩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미국 의회는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동등하게 분담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정부가 50% 정도를 부담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효과적으로 안되면 주한미군 장병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주택(숙소)문제에도 차질이 있다”며 “(만약 이대로라면)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비용을)삭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또한 이날 “북한은 지난달 27일 첨단(advanced)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고체(연료) 미사일로, 신속한 이동과 발사가 가능한 현대화된 무기”라며 “북한이 이를 전격화하고 사거리 연장을 통해 서울 남쪽의 도시들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특히 “평화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핵 능력의 결합”이라며 “한반도



와 세계 평화에 실질적인 이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조총련 매각 사건 결국 사기로 판명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논란을 빚은 중앙본부 회관 매각사건은 결국 사기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가타 시게타케(73) 전 공안조사청 장관과 미쓰이(73) 전 부동산회사 사장 등 체포된 3명이 35억엔의 매각대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조총련을 속여 토지와 건물을 사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검사장 출신으로 변호사인 오가타 전 장관이 이번 사기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NHK방송은 이와 관련, 오가타 전 장관이 자금 조달을 담당한 전직 은행원 가와에 히로시에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며 조총련측에 돌려주면 그만이다”며 매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콜롬비아 게이 퍼레이드 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한 게이들과 트랜스섹슈얼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영 경찰 ‘실패한 테러’ 용의자 5명 체포

영국 경찰은 런던과 글래스고에서 지난달 29일과 30일 발생한 ‘실패한 차량 테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글래스고 공항 터미널 문을 향해 돌진, 폭발한 차량에 탔던 아시

아계 남성 2명을 지난달 30일 현장에서 체포한 데 이어 잉글랜드 북부 체셔의 주요 도로에서 이날 밤 26세 남성과 27세 여성을 체포하고 일대 주택들을 수색했다.

경찰은 1일 글래스고에서 355km 떨어진 리버풀에서도 두 집을 수색, 26세 남성을 또 다른 용의자로 체포했다. 글래스고 공항에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지프 차량에 쏟아 부었던 남성은 심한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치료 중인 병원의 주차장에 남겨진 의심스러운 차량을 원격조종으로 폭파했다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사들의 공연을 보며 마술의 신비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처: 0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감정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와드립니다. 문의처: 02-526-2500

모디쉬갤러리 Sale. 다양한 브랜드의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문의처: 02-526-2500